

# 부부관계유형과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rriage Types and It's Discriminant Variabl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이 경 희  
교 수 옥 선 화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Lee, Kyung Hee

Prof. : Ok, Sun Wha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w are marital relationship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2) how do these types differ in terms of demographic variables (age, income,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self-esteem, differentiation) and interaction-related variables (affective self-disclosure,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what are the relative discriminant powers of these variables in explaining marriage typ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944 married women in Dajeon, who had one or more children,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Classification using median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used with SPSS-PC for windows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as follows: (1) The 'devitalized couples' consist of 18.2% of the whole sample. The levels of positive self-concept and positive interaction are the lowest. (2) The 'intimate couples' consist of 32.6% of the sample. They tend to be found most frequently in the population which is high in th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level and low in age. While the levels of positive self-concept and positive interaction are the highest, the levels of negative conflict resolution styles are the lowest. (3) The 'intimacy-

\* 이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persuaded couples' take 17.3% of the sample. The levels of positive self-concept and interaction are similar to the 'intimate couples'. (4) The 'conflict-habituated couples' take 31.9% of the sample. Whereas the levels of negative conflict resolution styles are the highest, the levels of positive self-concept and positive interaction are the low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amily-life education. It needs to apply different approaches to improve marital quality for each type of marriage.

**주제어(Key Words):** 부부관계유형(marriage types),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갈등해결방식(conflict resolution styles), 감정적 자기노출(affective self-disclosure)

## I. 문제제기

최근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나 임상과 상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부문제의 증가는 많은 부부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속해 가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특히 여성의 역할 변화, 개인주의, 평등주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원들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모호하게된데 기인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불안정한 부부관계가 가족의 위기나 해체와 관련되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므로,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연구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부부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건강한 부부관계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근래에 들어 가족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문제 부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부부갈등을 줄이고(유은희, 1994; Gurman & Rice, 1975) 부부친밀감을 증진하려는 것(신승철, 1996; Hatfield, 1984; Horowitz, 1979)임을 볼 때 이 두 차원을 토대로 하여 부부관계유형을 나누는 것은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즉 이 두 차원이 임상현장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되므로 이 두 차원을 고려하여 부부관계를 유형화할 경우, 건강한 부부와 문제부부의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으므로 임상가들의 부부문제 접근이 용이해 진다.

또한 부부친밀감과 부부갈등이라는 만족과 불만족 차원을 토대로 하여 부부관계유형화 작업을 한

후 이 유형을 설명하는 관련변수를 밝혀냄으로써 각 유형에 대한 특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부부친밀감을 높이고 부정적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부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부관계유형과 이러한 유형에 대한 특성을 밝혀주는 연구가 부족하며, 임상 현장에서는 임상가들이 부부갈등이나 부부친밀감의 문제를 호소하는 부부들에게 어떠한 접근을 통해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도와줄 만한 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 두 차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하는 작업은 가족연구 분야에서는 부부유형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 상담이나 교육의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처치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심리적 특성변수는 성역할 태도, 가족가치관, 역할관계 등(대한가정학회편, 1990)과 같은 태도 변수들이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질을 개선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담 및 치료 분야에서는 태도 변수보다는 잠재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심리적 특성변수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족상담이나 치료의 분야에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분화수준과 같은 개념에 주목한다.

한편 가족과정이론(Broderik, 1990)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부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한다. 또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

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족향상 프로그램들은 가족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정하는데 주안점을 둠(유영주 정민자, 1993)에 따라 부부관계 연구에 있어서도 두 사람의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변수들인 감정적 자기노출이나 갈등해결 방식과 같은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가족치료나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에 주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의 다양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부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의 두 차원에 따라 부부관계를 유형화하고, 둘째, 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부인의 취업유무), 심리적 특성변수(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상호작용 특성변수(갈등해결방식, 감정적 자기노출) 및 이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유형화 작업의 유용성에 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부부관계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부부관계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두 차원인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에 관해 살펴보았다.

### 1. 부부관계유형화의 유용성

일반적으로 유형화는 관찰사례를 서술하는데 편리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며 이론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학분야의 기초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또한 유형화는 다수의 개별 사례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적은 수

의 집락으로 축약하므로 연구된 현상을 체계화시킨다(Lavee & Olson, 1993). 유형화의 잠재적 유용성은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형화 혹은 분류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정보를 추출하여 종합하기 위한 연구,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Weiner, 1982). 둘째, 부부관계유형화 연구의 실제적인 이점은 임상가들에게 그들이 접하는 부부들간의 차이를 패턴을 가지고 조직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시 말해 부부들의 관계 패턴에 기초하여 개별 부부들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줌으로써 임상현장에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유형화 모델은 이론, 연구관찰, 그리고 임상활동에 공통적인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들간의 차이를 줄이는 다리역할을 한다.

### 2. 부부관계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

부부관계유형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에는 한 두 편(문혜숙, 1993; 윤양현, 1987)에 불과하나 외국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훨씬 앞선 60년대 Cuber와 Harroff(1965)의 연구를 효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내의 부부관계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윤양현(1987)은 부부갈등과 안정성의 차원에 따라 30대 중산층 비취업주부들과 남편 21쌍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아내갈등형, 남편갈등형, 상호갈등형, 상호만족형으로 부부관계유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부부관계유형을 나눈 가장 핵심적인 차원은 부부갈등이다. 다음으로 문혜숙(1993)은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을 두 차원으로 하여 부부관계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는 30·40대 기혼 남자 14명, 여자 26명으로 총 40명의 중산층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부부적응도 잘되고 성적 적응도 잘 되는 형, 부부적응은 잘 되지만 성적 적응은 안 되는 형, 부부적응은 안 되지만 성적 적응은 잘 되는 형, 부부적응도 안되고 성적 적응도 안 되는 형의 네 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유

형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문혜숙, 1993; 윤양현, 1987)은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에 의존한 바, 분류기준을 가지고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부부 유형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부부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연구된 부부관계유형화의 결과는 연구시기별로 소규모 표본의 질적 연구에서 통계적 방법에 의한 대규모 표본의 양적 연구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의 부부관계유형화 연구는 Cuber와 Harroff(1965)가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들은 200여명의 중류층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다섯 가지 타입의 부부관계유형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Goodrich와 그의 동료들(1968)은 질적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보충하고자 50쌍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질문지,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부부관계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Ryder(1970)도 역시 20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면접과 통계 분석을 통하여 부부관계유형을 나누었다. 그는 부부관계유형을 나누는 주요 차원으로 남편에게서는 갈등 통제와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반면 부인에게서는 성과 결혼에 대한 규범이 부부관계유형을 나누는 주요 기준이 됨을 제시하였다. 부인과 남편이 제시하는 주요 차원으로 부부관계유형을 나누는 결과 21가지의 부부관계유형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숫자가 너무 많아 유형화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Miller & Olson, 1990)는 비판을 받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Shostrom과 Kavanaugh(1971)는 자기보고에 기초한 부부관계유형 연구를 하였는데, 부부갈등과 애정이 중요 분류차원이 되었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자 ⅔ 정도의 부부들이 상호보완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가지지 못한 측면을 상대방에게서 추구한다고 결론지었다. 1980년대 초반에 Filsinger, McAvoy와 Lewis(1982)는 291명의 부부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심층 면접한 결과 몰입되지 않은 부부, 고립된 부부, 부인 지지적 부부, 헌신적 부부, 간헐적인 헌신적 부부, 생기 있는 부부, 구조적 형태 없는 부부, 부인 거세형 부부의 일곱 가지 부

부관계유형을 발견하였다. Marks(1989)는 중류층과 소수의 하류층 82쌍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심층면접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부관계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차원을 개인, 부부, 제3자라는 인적체계요소이며 이에 따라 낭만적 관계, 도망자-추적자 관계, 분리된 관계, 균형적 부부관계, 부부 중심적 부부관계, 가족 중심적 부부관계, 느슨한 부부관계의 7가지 부부관계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가 분류한 다양한 부부관계 유형은 인적체계에 대한 헌신의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Lavee와 Olson(1993)은 부부관계유형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탈피를 주장하며 다수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하는 객관적 방법인 양적 방법이 보다 다양한 부부관계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8,385명의 조사대상자에게 부부관계향상척도(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 ENRICH) 점수를 받아 집락분석을 통하여 일곱 가지의 부부관계유형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부부관계유형을 활기 없는 부부, 재정 중심적 부부, 전통적 부부, 균형 잡힌 부부, 조화로운 부부, 생기 있는 부부, 갈등 부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 상호작용패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부부관계의 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류체계를 가지는 양적 방법을 통해 부부관계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양적 방법을 통한 부부관계유형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차원을 설정하는 문제이다(Miller & Olson, 1990). 차원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유형화된 집단의 상호배타성 및 포괄성에 의심의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한편 부부관계연구의 초기부터 부부관계의 질을 만족과 불만족의 독립된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왔고(Johnson, White, Edwards, & Booth, 1986), 경험적 연구의 고찰을 통해 만족 차원과 불만족 차원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차원으로 부부관계 유형화를 하는 것은 실제 부부관계가 만족과 불만족의 어느 한 가지 차원으로만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eldman(1979)은 부부간에 발생하는 만족의 차원과 긴장의 차원을 정신분석학적인 역동성에 근거를 두고 부부친밀감과 부부갈등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두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지려는 기본적인 친밀감의 욕구가 존재하나 이것은 친밀감 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친밀감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또 다시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두 사람의 친밀감이 증대되면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생성되며 이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Feldman(1979)은 부부관계에서의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 두 가지가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부관계의 질은 불만족 차원과 만족차원의 두 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고 불만족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갈등을, 만족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친밀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Feldman(1979)의 논의는 부부관계에서 친밀감과 갈등이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하나 이 두 차원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3. 부부갈등개념

Galvin과 Brommel(1986: 166)이나 Coleman(1984: 178)과 같은 학자들은 가족관계 측면에서 갈등을 정의하였다. 이는 가족원들간의 심리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심리상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욕구 충돌의 설명에 기초하여 이를 대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확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점에서의 가족갈등이란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갈등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Galvin & Brommel, 1986:

166)고 설명하였다. 또한 Coleman(1984:178)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갈등으로 정의하였다.

### 4. 부부친밀감 개념

친밀감의 상호성에 주안점을 둔 Hatfield(1984: 208)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서로 가까워지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Reis와 Shaver(1988: 375)는 “두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해 받고, 인정받고, 배려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된 결과 자신의 중요한 개인적 감정과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이와 같이 친밀감을 보다 명확한 요소들로 구성하여 정의한 Moss와 Schwebel(1993)은 친밀감이란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이와같이 친밀감을 심리적 구성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학자들(Hatfield, 1984; Moss & Schwebel, 1993; Reis & Shaver, 1988)은 두 사람의 상호 인정과 지지, 인지 감정 행동의 상호공유성을 강조한다.

### 5. 관련변수의 고찰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은 부부갈등이나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연령은 결혼지속년수를 대변하는 시간적 변수로 또한 세대별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범적 변수로서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의 두 차원으로 분류된 부부관계유형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문제해결 기술 및 사회적 기술, 유능성과 관련되는 변수이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부부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가 된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가 된다.

가정의 소득은 가정 경제의 중요 자원으로 경제 생활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즉 금전은 구매의 수단으로 기본적인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안정, 자부감, 타인의 인정과도 관계되는 중요 변수이다.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변화순, 1992; 이미영 박혜인, 1995; Coleman, 1984; Madden & Janoff-Bulman, 1981)을 보아도 소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은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 차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이다.

주부의 취업은 주부로 하여금 경제적 능력을 소유하게 하나 전통적으로 주부에게 요구되어온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은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함으로써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취업에 따르는 과중한 역할분담이나 역할의 부적절한 수행은 가족을 갈등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직업과 가사수행간의 긴장 및 역할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들의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부의 대처가 제시된다(Cooper, Chassin & Zeiss, 1985).

## 2) 심리적 특성변수

부부갈등이나 부부친밀감에 관련되는 부부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라는 심리적 특성변수가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심리적 특성변수로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대인간 혹은 부부관계의 질에 관심을 가진 몇몇 학자들(Levine, 1991; Nelson, Hill-Barlow & Benedict, 1994)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각 배우자의 심리적 건강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 변수를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Satir, 1975)과 자아분화수준(Bowen, 1976)은 부부 및 가족치료 분야에서 건강한 자이를 일컫는 주요 개념으로 부부나 가족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관계에서 부부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각 배우자의 심리적 특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 3) 상호작용특성변수

가족 과정 이론(Broderick, 1990)은 가족의 구조보다는 과정에 일차적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원 상호간의 상호작용에 주된 관심을 둔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부부관계의 질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부부간의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한다. 가족 과정 이론에서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방식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원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양식은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소통방식은 일상적 의사소통방식과 갈등상황시의 갈등해결방식의 두 가지 개념으로 변수화되는데(Galvin & Brommel, 1986), 전자의 경우 그 개념의 범주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설정되는 까닭에, 이 연구에서는 보다 한정되고 구체적인 갈등해결방식 변수를 부부관계유형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특별히 부부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관련변수로는 갈등해결방식이 주목을 받아왔기(고현선 지금수, 1995; 길미령, 1990; 노치영, 1996; 홍원표, 1993; Gottman, 1993; Gottman & Krokoff, 1989; Kurdek, 1994) 때문이다.

한편 부부친밀감은 각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상호작용 특성변수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한다(Conlin, 1994). 그런데 부부친밀감의 경우 특별히 다른 상호작용 특성변수보다 감정적 자기노출이 부부친밀감을 결정짓는 중요변수로 취급(Conlin, 1994)되어 왔다. 감정

적 자기노출의 경우 이를 심리적 특성변수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작용 특성변수로 간주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상황, 상대방,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감정적 자기노출은 듣는 사람의 반응이 전제되므로 상호작용 특성변수라고 한다 (Morton & Douglas, 1981; Reis & Shaver, 198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감정적 자기노출과 갈등해결방식을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특성변수로 간주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절차

대전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 94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적합성 검토를 거친 문항들로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7년 4월 23일에서 5월 13일까지 21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한 후 표집설계에 따라 1997년 5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75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총 1320부이며 이 중 1092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2.4%). 회수된 1092부 중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 기재된 24부, 자녀가 없는 응답자 32부, 60대 이상의 응답자 3부, 20대 응답자 43부, 친인척 동거 가족 응답자 42부, 재혼인 응답자 4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944부(71.5%)이다.

#### 2. 개념정의 및 조사도구

#####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의 정도란 선행연구(변화순, 1992; 이영실, 1989; Galvin & Brommel, 1986)의 정의를 참고

로 하여,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소지하고 있는 갈등의 정도라고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부부갈등 척도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김갑숙, 1991; 김영자, 1992; 김혜경, 1987; 박선미, 1987; 박영옥, 1986; 이신영, 1983; 이영실, 1989; 이창만, 1992; 홍원표, 1993)에 의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부부갈등척도가 개발되어 이들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의 생활에서 부부가 소지하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때때로', '자주'의 다섯 가지이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부여는 5점 Likert 방식에 따랐다. 재조사법<sup>1)</sup>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6이다

##### 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이란 선행연구(Broucke et al., 1995; Moss & Schwebel, 1993; Stevens & L'abate, 1989)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상호공유적인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밀접함의 정도라고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인지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에 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성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부친밀감을 측정할 문항들은 선행연구(Broucke et al., 1995; Descutner & Thelen, 1991; Stevens & L'abate, 1989)를 참고로 하여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으로 총 15 문항이다.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점수부여는 5점 Likert 방식에 따랐다. 이 척도의 신뢰

1) 재조사법은 갈등척도만 실시하였다. 재조사는 1997년 4월 23일에 1차 질문지를 배부하여 26일까지 응답을 받은 후 2주일 간격을 두고 5월 10일에 2차 질문지를 배부하여 13일까지 응답을 받았다.

도를 검증한 결과는 .90으로 신뢰할만한 수치이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Abbey와 그의 동료들(1992)의 정의에 따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가치롭게 여기며, 인정하고 좋아하는 정도로 고 정의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간략하게 축약시킨 Abbey와 그의 동료들(1992)의 총 6문항으로 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된 총 문항 수는 4개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62로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문항 수에 영향을 받는 신뢰도 계수로서,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수가 네 개인 점을 감안 할 때,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Bohmstedt, 1970).

### 4) 자아분화수준

자아분화수준이란 제석봉(1989)과 Bowen(1976)의 정의를 수용하여 자신과 타인, 정서과정과 지적과정, 확고한 자기와 거짓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Bowen의 자아분화척도를 한국실정에 맞게 개발한 제석봉(1989)과 이를 다시 재 사용한 전춘애(1994)의 자아분화척도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자아분화수준 척도의 총 문항 수는 8문항이다. 신뢰도 계수는 .7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 5) 갈등해결방식

선행연구(Gottman & Krokoff, 1989; Kurdek, 1994)를 참고하여 갈등해결방식이란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갈등상황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행동방식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갈등해결방식은 사용방식에 따라 언어적 공격, 긍정적 문제해결, 회피라는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하위영역 방식이 각각 하나의 변수로 사용된다. 언어적 공격은 갈등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 모욕, 무시하는 행동을 말한다. 긍정적 문제해결이란 갈등이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방과 타협, 조정, 대안의 탐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회피란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 밝히지 않은 채 상대방과 거리감을 두고 갈등상황에 대처한 행동을 말한다.

갈등해결방식의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Kurdek(1994)의 갈등해결방식척도(Conflict Resolution Inventory: CRI)를 번안하여 갈등해소에 사용되는 갈등해결방식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는데 언어적 공격(예: 남편에게 비난을 퍼붓곤 했다), 긍정적 문제해결(예: 갈등이 발생한 문제 자체에 초점두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회피(예: 며칠간 남편과 말없이 지냈다)의 각 4문항씩을 합하여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가 언어적 공격 .71, 긍정적 문제해결 .76, 회피 .73으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치이다.

### 6) 감정적 자기노출

선행연구(Cozby, 1973)를 참고로하여 자기노출은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이고, 솔직하고, 개방적인 언어적 진술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기노출에는 긍정적 자기노출과 부정적 자기노출로 분류할 수 있다(Hoffman-Graff, 1977). 긍정적 자기노출이란 개인적인 장점이나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부정적 자기노출이란 개인적인 결점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적 자기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alswick(1975)의 감정적 자기노출척도(Affective Self-Disclosure Scale for Couples: ASD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랑, 행복의 긍정적 자기노출을 묻는 8개 문항과 미움, 슬픔의 부정적 자기노출을 묻는 8개 문항을 합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 .88로 신뢰할 만한 수치이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와 재조사를 통한



검증인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r),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점수대의 분포를 보인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부의 평균연령은 42.7세이며 부인의 학력은 고졸이 4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소득은 100만원-200만원대가 가장 높아 39.2%를 차지하며,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는 전업주부가 70.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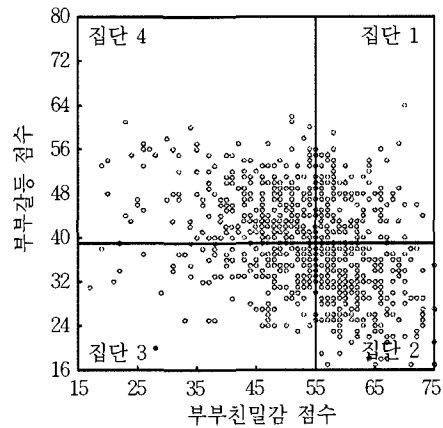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부관계유형의 두 가지 차원인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과 심리적 변수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부부갈등은 평균점수가 39.1로서 중앙값인 39.0에 접근한다. 부부갈등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나 응답자의 분포범위는 17점에서 64점으로 갈등수준이 아주 높은 응답은 보이지 않았다. 부부친밀감은 평균 점수가 53.6으로 중앙값 55.0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나 편포도를 보면 응답자의 부부친밀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점수대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347로 나와 약간의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감정적 자기노출의 응답분포 또한 약간 높은 점수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언어적 공격이나 회피는 낮은

##### 2. 부부관계유형화

부부관계유형의 두 차원이 되는 부부갈등, 부부친밀감 두 점수를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부부관계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 점수의 응답분포가 모두 편포하는 분포를 보이므로 두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 축을 이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 두 차원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부부친밀감을 x축으로 하고 부부갈등을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부친밀감과 부부갈등 점수 분포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분류

<표 1>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의 전반적인 경향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중앙값	응답자 분포범위 (응답가능범위)	편포도
부부갈등	39.03	9.03	39.0	17-64(16-80)	.03
부부친밀감	53.56	10.40	55.0	17-75(15-75)	-.67
자아존중감	14.54	2.76	12.5	5-20(4-20)	-2.33
자아분화수준	28.49	4.78	25.0	12-40(8-40)	-.171
언어적 공격	6.79	2.36	11.0	4-18(4-20)	1.02
긍정적문제해결	11.53	3.62	12.0	4-20(4-20)	13.2
회피	8.22	3.12	12.0	9-20(4-20)	.848
감정적 자기노출	51.55	12.23	48.0	16-80(16-80)	-.217

먼저 집단 1(친밀감추구형)은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이 중앙값 이상의 집단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집단 2(친밀형)는 부부갈등 점수가 중앙값 이하이고 부부친밀감 점수가 중앙값 이상의 집단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한다. 집단 3(포기형)은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 점수 모두 중앙값 이하의 집단으로 18.2%를 차지한다. 집단 4(갈등형)는 부부갈등이 중앙값 이상이고 부부친밀감이 중앙값 이하인 집단으로 31.9%를 차지한다.

3. 부부관계유형의 판별요인

1) 판별함수의 구성

여기에서는 각 부부관계유형을 분류해 낼 수 있는 변수들을 밝히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취업여부), 심리적 특성변수(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상호작용 특성변수(갈등해결방식, 감정적 자기노출)를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갈등해결방식은 서로 다른 해결방식인 긍정적 문제해결, 언어적 공격, 회피가 각각 하나의 변수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수는 총10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Z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dots \dots \dots + \beta_{ix_i}$$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호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sup>2)</sup>.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가 .5이하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이

영준, 1993) 이 연구의 판별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아 판별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분석에 투입되는 방식은 단계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판별함수의 수는 집단의 수와 독립변수의 수에 의존하여 정해진다(김범중, 1996). 다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추출된 세 개의 판별함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함수1에 의해 집단 구분이 가장 잘 분류되어 집단 분류의 87.4%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함수2와 3은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해 각 각 8.2%, 4.4%를 설명한다.

이와 같이 3개의 판별함수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9개의 독립변수가 3개의 독립변수 군으로 묶여 집단분류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은 추출된 세 개의 판별함수와 각 변수의 상관계수로 이를 통해 각 개별 변수가 어떤 함수에 포함되어 집단을 구분하는지를 알 수 있다. 판별함수와 각 변수의 상관계수는 판별분석에서 판별부하량(discriminant loadings)라고 불리는데 판별변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계수이다.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변수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판별계수보다는 판별부하량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이영준, 1993). 또한 판별부하량을 해석함에 있어 판별함수가 세 개 이상

2) 판별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표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표 2> 판별함수 (Discriminant Functions)의 유의도

함수 (Function)	고유치 (Eigenvalue)	설명변량 (Percent of variance)	정준상관 (Canonical corr.)	유의도 (Sig.)
1	.545	87.42	.594	.000*
2	.051	8.24	.221	.000*
3	.027	4.35	.162	.002**

\* : P < .001

\*\* : P < .01

〈표 3〉 회전된 판별부하량 (Rotated Discriminant Loadings)

변 수	합수 1	합수 2	합수 3	부분변량 F (유의도)	효용성지수 (Potency Index)
회피	.839	-.034	-.003	46.9 (.000)	.616
언어적 공격	.578	-.237	-.112	43.9 (.000)	.297
감정적 자기노출	.061	.819	-.016	34.1 (.000)	.059
긍정적 문제해결	-.278	.520	.010	35.9 (.000)	.090
자아존중감	-.114	.508	.276	33.3 (.000)	.046
자아분화수준	-.194	.237	.077	17.1 (.000)	.038
교육수준	.114	.078	.910	18.6 (.000)	.048
가계소득	-.203	-.038	.579	16.7 (.000)	.051
연령	-.037	-.102	-.369	9.81 (.000)	.008
취업유무	-.046	.023	.138	2.28 (.077) <sup>ns</sup>	.003

이 될 때는 회전된 판별부하량(rotated discriminant loadings)을 해석하는 것이 합수의 설명을 용이하게 한다(Hair et al., 1995).

## 2) 판별합수 및 판별부하량의 해석

〈표 3〉에 나타난 판별부하량에 따르면 합수1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회피, 언어적 공격으로 나타났다. 회피, 언어적 공격과 같은 변수들은 갈등해결방식의 두 가지 다른 하위 방식을 설명하는 변수들이었다. 그런데 합수 1은 갈등해결방식의 또 다른 한 가지 하위 방식인 긍정적 문제해결 변수는 제외되고 나머지 두 가지 하위 갈등해결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문제해결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 변수들로만 구성된 합수 1은 “부정적 갈등해결”이라는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결국 회피와 언어적 공격은 서로 상관의 정도가 높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갈등해결방식에서 회피를 자주 사용하는 집단은 언어적 공격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이 부부관계유형별 집단의 차이를 87.4% 정도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와 언어적 공격의 개별 효용성 지수(potency index)를 살펴보면, 이 두 변수의 효용성 지수가 다른 변수들의 효용성 지수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집단을 판별하는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합수 2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감정적 자기노출, 긍정적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합수 2에 함께 묶인 변수들은 심리적 특성변수(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와 상호작용 특성변수(감정적 자기노출, 긍정적 문제해결)이다. 이와 같은 변수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긍정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수 2는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합수 2의 경우에는 심리적 특성 변수군과 상호작용 특성 변수군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는데 상대적으로 심리적 특성변수에 비해 상호작용 특성변수가 합수 2를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높음을 효용성 지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 및 긍정적 자아개념은 부부관계유형별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하나 합수 1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합수 3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교육수준, 가계소득, 연령 변수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합수 3에 함께 묶인 변수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라는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앞의 심리적 특성이나 상호작용 특성과 구분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부부관계유형을 판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합수 3의 판별력은 합수 1과 2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그 판별력이 매우 약해짐을 알 수 있다. 함수 3을 설명하는데 특히 유의한 변수들은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은 비록 함수 3에 포함되었으나 효용성 지수가 .008로 매우 미약한 판별력을 나타냈다. 더군다나 부인의 취업유무 변수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 기각되어 집단을 판별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집단중심치의 해석

각 판별함수의 특징은 각 부부관계유형 집단의 집단중심치(group centroid)<sup>3)</sup>를 비교함으로써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앞서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함수 1, 2, 3에 의해 부부관계유형별 집단의 차이를 판별해 낼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각 함수가 어떠한 집단들을 구별해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수 별 집단중심치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표 4〉는 각 판별함수가 어느 집단을 보다 잘 구분해 주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 우선 함수 1, 2, 3의 값들을 비교해 보면 수치적으로도 함수 1의 수치들이 함수 2, 3의 수치들보다 차이가 커서 각 집단을 더 잘 구분해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함수별로 각 집단간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변수군과 각 개별변수들에 의해 집단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함수 1(부정적 갈등해결)에서 친밀형(-.53)과 갈등형(.73)의 거리가 가장 멀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친밀형(-.53)과 친밀감추구형(-.21)의 집단중심치는 모두 음의 값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포기형(.01)은 친밀감추구형과 갈등형의 중간에 위치하나 상대적으로 친밀감추구형에 보다 가깝다. 갈등형(.73)은 상대적으로 친밀형이나 친밀감 추구형

과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은 비교적 친밀형과 친밀감추구형에서 낮고, 다음으로 회피형, 갈등형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함수 2(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에서는 포기형(-.54)과 친밀형(.57)의 거리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친밀형(.57)과 친밀감추구형(.30)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갈등형(-.46)과 포기형(-.55)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의 차이는 친밀형과 포기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친밀형과 친밀감추구형의 차이나 포기형과 갈등형의 차이는 다른 집단들과의 차이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수 3(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친밀형(.42)과 친밀감추구형(-.33)집단의 거리 차이가 가장 크다. 친밀형(.42)만이 양의 값을 갖고, 다음으로 포기형(-.01)이 위치한다. 친밀감추구형(-.32)과 갈등형(-.31)은 가까이 위치하여 이 두 집단의 거리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인구학적 특성상으로는 친밀형만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른 특성을 보이며 친밀감 추구형, 포기형, 갈등형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판별요인에 대한 종합해석

이와 같은 판별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3) 도출된 유의적인 판별함수 별로 각 그룹에 속하는 표본들의 판별특점의 평균이 판별함수의 그룹중심점(group centroid)이다. 판별함수가 각 종속변수의 그룹을 잘 판별할 수 있다면 각 그룹의 중심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그룹중심점들이 근접해 있다(이영준, 1993).

〈표 4〉 각 함수의 집단중심치 (Group Centroid)

집 단	함수 1 (부정적 갈등해결방식)	함수 2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	함수 3 (사회인구학적 특성)
포기형	.012	-.546	-.015
갈등형	.732	-.459	-.313
친밀형	-.532	.571	.423
친밀감추구형	-.213	.299	-.327

부부관계유형을 결정짓는 유의한 차이는 부부간에 어떠한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은 이 분석을 통하여 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갈등해결방식 변수가 부부갈등을 증대하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부부친밀감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Prager, 1991)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관계유형별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의 차이는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준다. 친밀형과 친밀감추구형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의 정도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차이가 적으며, 포기형과 갈등형에도 많은 차이가 없으면서, 친밀형과 포기형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부갈등과 갖는 관련성보다 부부친밀감과 보다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함수 3(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포함되어 상호작용 특성변수나 심리적 특성변수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는 설명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단지 친밀형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보

다는 심리적 특성변수가 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대한가정학회편, 1990)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5) 판별함수에 의한 분류정확률

다음으로 위의 변수들에 의하여 각 부부관계유형이 얼마나 정확히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류정확률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각 변수들의 예언력 우수성을 판단하였다. 네 개의 집단을 가지고 앞서 추출된 판별식으로 부부관계유형의 분류정확률을 산출해 보았더니 <표 5>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 집단을 올바르게 분류할 분류 정확률(Hit Ratio)이 47.0%로 최대우연기준치<sup>4)</sup>에 의한 비교기준인 32.6%보다 14.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판별분석에서 가정된 모형이 어느 정도 판별력을 갖는 것이지를 평가해 보는 기준은 Cmax(최대우연기준치)와 Cproportional(비율우연기준치)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최대우연기준치의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모두 분류 시에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을 비교기준하는 것이고 비율우연기준치는 각 집단의 비를 제공하여 더한 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김범중, 1996). 각각의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_{max} = \frac{\text{최대빈도집단의 표본수}}{\text{전체 표본수}}$$

$$C_{proportional} = \sum_{i=1}^n \left( \frac{\text{집단의 빈도수}}{\text{전체 표본수}} \right)^2$$

<표 5> 네 가지 부부관계유형의 분류 정확률

실제집단	빈도	예측 집단			
		포기형	갈등형	친밀형	친밀감추구형
포기형	172	55 32.0%	49 28.5%	34 19.8%	34 19.8%
갈등형	301	73 24.3%	140 46.5%	22 7.3%	66 21.9%
친밀형	308	39 12.7%	24 7.8%	174 56.5%	71 23.1%
친밀감추구형	163	24 14.7%	31 19.0%	33 20.2%	75 46.0%

분류정확률 (Hit Ratio) = 47.0%

#### 4. 부부관계유형별 특성

여기서는 앞서 판별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각 집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요약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각 유형별 설명변수들의 평균차이를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 1) 친밀형

친밀형은 전체의 32.6%를 차지한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은 가계소득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심리적 특성을 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갈등해결방식에서는 긍정적 문제해결의 사용정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았으며 회피와 언어적 공격의 사용정도는 가장 낮았다. 감정적 자기노출 수준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밀형 집단은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긍정적 문제해결, 긍정적 자기노출이 모두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고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30~40대 대졸의 교육수준을 지닌 중산층 부부들의 부부적응과 성적만족 유형을 연구한 문혜숙(1993)의 연구 결과에서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이 모두 잘 되는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계층에서 부부관계

의 질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이 유형 주부들의 연령이 비교적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는 것은 낮은 연령대의 주부들이 부부관계에서 애정이나 친밀감을 더 중요시하여 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애정이나 친밀감을 원하며(Reedy et al, 1981) 부부관계의 근간을 애정이라(김영모, 1990)고 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부부관계규정의 인식 차이와 부부관계 유형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친밀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질적 연구를 행한 이전의 연구들(문혜숙, 1993; 윤양현, 1987)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 2) 포기형

포기형은 전체의 18.2%를 차지한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이나 자아분화수준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게 나타났다. 갈등해결방식에서는 갈등형 다음으로 회피와 언어적 공격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긍정적 문제해결 방식의 사용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자기노출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이 유형의 특징을 잘 대변한다. 이렇게 저조한 감정적 자기노출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분화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낮다는 특성과 함께 고려

<표 6> 부부관계유형별 설명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유형	친밀형	포기형	갈등형	친밀감추구형
회피		6.88( 2.69)	8.34( 3.04)	10.11( 3.32)	7.70( 2.59)
언어적 공격		5.69( 1.60)	7.03( 2.48)	7.94( 2.43)	6.40( 1.98)
감정적 자기노출		56.37( 12.26)	46.28( 11.90)	47.66( 11.03)	54.16( 10.16)
긍정적 문제해결		13.04( 3.94)	10.54( 2.88)	10.01( 3.41)	12.24( 2.92)
자아존중감		15.71( 2.44)	13.74( 3.04)	13.42( 2.64)	14.71( 2.45)
자아분화수준		30.04( 4.65)	28.49( 4.40)	26.92( 4.83)	28.37( 4.46)
교육수준		13.80( 2.87)	12.50( 3.30)	11.94( 3.17)	11.75( 2.91)
가계소득		295.28(125.75)	258.95(114.31)	222.68(100.69)	240.13(100.45)
연령		40.70( 7.71)	43.80( 8.72)	44.49( 7.94)	43.58( 7.69)

해 볼 때 이 집단이 비교적 활기가 없는 부부관계 유형임을 보여준다.

이 집단의 부부갈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 이 유형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설명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의 큰 특징이 긍정적 자아개념 및 긍정적 상호작용이 갈등형과 함께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질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상호발전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제한된 상태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부족이 부부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줄여 부부갈등이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부부들은 비록 부부긴장을 초래하게 될지라도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감정적 자기노출과 긍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정도가 낮으며,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와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병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장'적 의사소통은 갈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기보다는 갈등이나 불화를 모호하게 하거나 가면을 쓰고 반응하는 현상으로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 더 좋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 3) 갈등형

갈등형은 전체의 31.9%를 차지한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 감정적 자기노출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포기형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갈등해결방식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피와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정도에서 가장 높았고 이것이 타 유형과 이 유형을 뚜렷이 구분하는 특성이다. 이 유형이 친밀감 추구형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이 부부친밀감을 저해하면서 동시에 부부갈등을 증가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 상호작용 방식의 특징이 긍정적 상호작용은 매우 낮으면서 부정적 상호작용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유형 역시 안정된 부부관계유형의 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부부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나름대로의 기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양현의 연구(1987)에서는 갈등이 노골화 된 '상호갈등형'의 부부들에게조차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 한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지속은 당연시되었다. 또한 문혜숙의 연구(1993)에서도 부부갈등이 가장 많은 유형(한국적 부부갈등형)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이혼까지 이르지 않게 한데는 자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으로서 원만하기 않은 부부관계를 영위하고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고수하는 전통적 결혼관을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자식이나 체면 등으로 결혼을 지속시키고 있는 부부관계임을 알 수 있다.

갈등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부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갈등 상황의 건설적 처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유형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도 포기형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갈등이 만성화된 유형의 부부들이 상담 현장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오랫동안 갈등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분노, 무시당함, 배반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난다(유은희, 1994). 이때 이러한 부부들에게 상담자가 감정이입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고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격앙된 감정이 감소되고 이는 다시 부부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마음을 갖게 해 줄 수 있다(유은희, 1994). 따라서 갈등형의 부부들에게 자아존중감이나 자아분화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감소와 긍정적 상호작용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친밀감추구형

친밀감추구형은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이 유형에 속한 주부들은 가계소득, 교육수준, 연령에서 포기형이나 갈등형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 친밀형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갈등해결방식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피와 언어적 공격은 적게 사용하는 편이며 긍정적 문제해결이나 감정적 자기노출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감정적 자기노출은 친밀형과 거의 차이가 없이 높은 수준이다. 친밀감추구형의 자아개념이나 긍정적 상호작용, 부정적 문제해결의 사용 정도는 친밀형과 유사하나 단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유형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며 감정적 자기노출과 긍정적 문제해결의 사용 정도가 높고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 정도가 낮은 특성이 비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친밀감 수준이 높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집단의 부부갈등은 서로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의견차이나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이 갈등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거의 유사하나 갈등해결방식이나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들 요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갈등형이나 친밀감추구형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교육수준이 낮다는 특성으로 부부갈등을 좀 더 일으킬 소지가 높으나,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임으로서 부부관계의 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적인 자기노출에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부부들은 부부갈등이 높다는 사실을 부부사이의 문제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보다 심층적 분석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첫째,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의 두 차원에 따라 분류된 네 가지 부부관계유형은 친밀감추구형, 친밀형, 포기형, 갈등형이다.

둘째, 부부관계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판별요인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회피, 언어적 공격), 긍정적 상호작용 및 긍정적 자아개념(긍정적 문제해결, 감정적 자기노출,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사회인구학적 특성(학력, 가계소득, 연령)의 순서이다.

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갈등해결방식이라는 결과는 부부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갈등해결방식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 갈등해결방식은 특히 친밀형과 갈등형에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밀형에서는 긍정적 문제해결의 사용 정도가 가장 높으며 갈등형에서는 언어적 공격이나 회피와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 정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부부갈등은 많지만 부부친밀감이 높은 친밀감추구형에서 긍정적 문제해결의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회피나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 정도가 낮다는 것은 비록 부부갈등이 많은 집단일지라도 갈등상황의 해결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부친밀감을 증진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상담을 받고 있는 부부들의 갈등해결방식이 주로 회피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은희, 1994)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이 부부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해결방식과 더불어 감정적 자기노출이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감정적 자기노출의 수준이 친밀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기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감정적 자기노출이 부부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또한 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아분화수준보다 부부관계유형을 구분짓는 좀 더 유용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가족치료의 분야에서 한 개인에게 심리적 접근을 할 때 인지적 접근보다 정서적 접근이 유용함을 말해준다. 즉 Bowen(1976)의 자아분화이론에서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감정으로부터 이성을 분리해냄으로써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Satir(1975)의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이성으로 억눌린 정서적 측면을 해소하여 이를 통해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기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아분화수준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보다 집단을 변별하는 심리적 특성 변수로 나타나 정서적 접근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가치 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측면에서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형화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갈등해결방식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부부친밀감을 높이고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친밀형과 갈등형을 뚜렷이 구분하는 특성이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갈등해결방식과 더불어 감정적 자기노출이 부부관계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부부친밀감을 증진시키며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감정의 솔직한 표현이 필요하고 부부관계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자기표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받는다. 한국 부부들 중 특히 남편이 부인에 비해 감정적 자기노출이 낮다(변경애, 1993; 정은미 김명자, 1996)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교육이 특히 남편들에게 실시되면 보다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부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을 개발시키는 프로그램(Clark, 1970, Robert, 1974; 심혜숙 유수경, 1996에서 재인용)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시험적으로 이러한 자아존중감 훈련 프로그램(심혜숙 유수경, 1996)이 개발되고 있음을 볼 때, 자아존중감이 부부관계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이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분화수준 변수는 임상이나 상담의 현장에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발견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이 확인된 것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부들에게만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 부부들에게 가족생활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넷째, 부부관계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 것은 다양한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부들에게 동일한 방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포기형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갈등형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을 개선시킴으로써 보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부부갈등과 부부친밀감의 심리적인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시각에 기초한 주관적 응답 대신 보다 객관적인 방법

으로 실험실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 상담자료를 통한 질적 분석의 방법이 보완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부부유형의 형성, 발전, 변형 등의 발전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감정적 자기노출이나 갈등해결방식과 같은 상호작용 특성 변수의 경우, 자신의 표현 정도나 사용정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정도나 사용정도와 또 이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얼마만큼 수용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면 보다 설명력 있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길미령(1990).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범중(1996). SPSS/PC+ 사용법과 통계분석기법 해설. 서울: 학현사.
- 김영모(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김영자(1992). 도시 지역 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 갈등정도 정신건강상태와의 관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대한가정학회편(1990). *아동학 가족학*. 서울: 교문사.
- 문혜숙(1993).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박영옥(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1987). 부부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고찰.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변경애(1993).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감정의 언어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92).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217-249, 서울: 오름시스템.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신승철(1996). *남편인가 타인인가*. 서울: 효형출판사.
- 심혜숙, 유수경(1996). Satir 가족치료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4, 7-24.
- 유영주, 정민자(1993). *가정생활 교육 및 상담*.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355-393, 서울: 하우.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편.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40-53,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윤양현(1987).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신영(1983).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생활 불만족의 정도. *승실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준(1993). *다변량분석*. 서울: 도서출판 석정.
-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김순옥(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89-114.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정은미, 김명자(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

- 학회지, 14(1), 47-64.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홍원표(1993). 도시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리 -부산 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Abbey, A., Andrews, F.M. & Halman, L.J. (1992). Infert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inter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408-41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M.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80-125, NY: Gardner Press.
- Broderick, L.B. (1990). Family process theory. In Sprey, J.(Ed.). *Fashioning family theory: new approaches*, 171-206, Newbery Park: Sage Publications.
- Broucke, S.V., Vertommen, H. & Vandereycken, W. (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4, 285-290.
- Coleman, J.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NY: The Bobbs-Merrill.
- Conlin, M.A. (1994).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timacy in married couples: A meta-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pperdine University.
- Cooper, K., Chassin, L. & Zeiss, A. (1985). The relation of sex-role, self-concept and sex-role attitudes to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 adjustment of dual-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12-1 · 2, 227-241.
- Cozby, P.C. (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73-91.
- Cuber, J.F. & Harroff, P.B. (1965). *The significant americans: A study of sexual behavior among the affluent*. NY: Appleton- Century.
- Descutner, C.J. & Thelen, M.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218-225.
- Feldman, L.B. (1979).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intimacy: An integrative psychodynamic-behavioral systemic model. *Family process*, 18, 69-78.
- Filsinger, E.E., McAvoy, P. & Lewis, R.A. (1982). An empirical typology of dyadic formation. *Family process*, 21, 321-335.
- Galvin K.M. & Brommel B.J. (1986). *Family communic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ilbert, S. (1976). Self-disclosure, intimacy and communication in families. *Family coordinator*, 25, 221-231.
- Goodrich, D.W., Ryder, R.G., & Rausch, H.L. (1968). Patterns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1), 383-389.
- Gottman J.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 Gottman J.M. & Krokoff, L.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urman, A. S. & Rice, D. G. (1975). *Couples in conflict*. NY : Jason Aronson.
- Hair, J.F., Anderson, R.E., Tatham, R.L., & Black, W.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 NJ: Prentice Hall.
- Hatfield, E. (1984). The danger of intimacy. In V.J. Derlega (Ed.).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 207-221, NY: Academic Press.
- Hoffman-Graff, M.A. (1977). Interviewer use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disclosure and

- interviewer-subject sex par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184-190.
- Horowitz, L.M. (1979).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Johnson, D.R., White, L.K., Edwards, J.N., & Booth, A. (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7(1), 31-49.
- Johnson, D.R., White, L.K., Edwards, J.N., & Booth, A. (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7(1), 31-49.
- Kurdek, L.A. (1994).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par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705-722.
- Lavee, Y. & Olson, D.H. (1993). Seven types of marriage: Empirical typology based on ENRI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4), 325-340.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evine, S.B. (1991). Psychological intimac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7(4), 259-269.
- Madden, M.E. & Janoff-Bullman, R. (1981).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Wive's attributions for conflic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663-674.
- Marks, S.R. (1989). Toward a systems theory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5-26.
- Miller, B.C. & Olson, D.H. (1990). Types of marital interaction: Using cluster analysis. In T.W. Draper & A.C. Marcos (Eds.). *Family variab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use*, 67-89, CA: Sage Publications.
- Morton, T.L. & Douglas, M.A. (1981). Growth of relationships. In: S. Duck & R. Gilm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3-26, NY: Academic Press.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Nelson, E.S., Hill-Barlow, D. & Benedict, J.O. (1994). Addiction vs. intimacy as related to sexual involvement in a relationship.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0(1), 35-45.
- Prager, K.J. (1991). Intimacy status and couple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05-526.
- Reedy, M.N., Birren, J.E. & Schaie, K.W. (1981). Age and sex differences in satisfying love relationships across the adult life span. *Human Development*, 24, 52-66.
- Reis, H.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367-389, NY: John Wiley & Sons, Ltd.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der, R.G. (1970). A typography of early marriage. *Family Process*, 9, 385-402.
- Satir, V. (1975). *Self-esteem*. CA: Celestial Arts.
- Shostrom, E. & Kavanaugh, J. (1971). *Between man and woman*. Los Angeles: Nash.
- Sloan, S.Z. and L'abate, L. (1985). Intimacy. In L. L'abate (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405-427, The Dorsey Press.
- Stevens, F.E. & L'abate, L. (198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theory-driven measure of intimacy. *The American J. of Family Therapy*, 17(4), 359-368.
- Weiner, I.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Y: Wiley.

〈부록〉 독립 관별변수간 상관관계

	부부 친밀감	부부 갈등	연령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취업 유무	자아 존중감	자아 분화수준	언어적 공격	긍정적 문제해결	회피	감정적 자기노출
부부친밀감	1.0000											
부부갈등	-.3475	1.0000										
연령	-.1594	.1340	1.0000									
교육수준	.1659	-.2287	-.4375	1.0000								
가계소득	.1348	-.2072	-.1367	.3623	1.0000							
취업유무	.0187	-.0109	-.1458	.0750	.1890	1.0000						
자아존중감	.3631	-.2190	-.1222	.1839	.1483	.0838	1.0000					
자아분화수준	.2465	-.2565	-.0059	.0427	.0537	.0345	.4145	1.0000				
언어적 공격	-.3632	.3102	.0552	-.0544	-.0775	-.0287	-.2459	-.3519	1.0000			
긍정적 문제해결	.4529	-.1889	-.1214	.1289	.0357	.0349	.3089	.2932	-.2371	1.0000		
회피	-.4554	.3042	.0808	-.1077	-.0859	.0299	-.2578	-.1838	.3174	-.3742	1.0000	
감정적 자기노출	.4320	-.0971	-.1570	.2116	.1062	.0386	.2187	.0352	-.0058	.4284	-.2482	1.0000